

# 새 단장 '강진 마량놀토 수산시장' 초대박 터졌다

### 2015년 개장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 역할 '톡톡' 최고 50% 폭탄세일에 토요일음악회 등 볼거리 풍성

올해 새롭게 단장한 '마량놀토 수산시장' 첫 개장 행사가 초대박을 터트렸다.

강진군은 지난 22일 마량놀토 수산시장 개장식 당일 전국에서 6,000여 명의 인파가 행사장을 찾으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00명 보다 1,000여 명 더 많은 수치로, 시장 상인들은 "지난 2015년 개장 이래 오늘처럼 많은 인파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개장 행사는 개회식 및 격려사, 축사, '3대 집·3無 약속' 실행 선언문 낭독과 성공 기원 퍼포먼스(300인분 비빔밥 비비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목포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방송도 함께 진행됐다. '장구의 신' 박서진, 유지나 외에도 소유미, 안지완, 장보윤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현장은 청정 마량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각종 수산물을 맛보고 즐기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광주에서 놀토시장을 찾은 강필상 씨는 "전국에서 가장 싱싱한 회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인어른과 함께 왔는데 정말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전에 없던 인파로 활기를 되찾은 마량놀토 수산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김용구 상인회장은 "야간 경관 덕분에 밤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매출도 대폭 늘었다"면서 "올 가을까지 강진 방문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고의 맛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마량놀토 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2022년까지 무려 98만여 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액 약 9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올해는 4월 22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지 매주 토요일, 총 30회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 및 판매 부스는 5층 29개소, 횡집 등 음식점 4개소, 수산물 좌판 7개소, 건어물 판매장 2개소, 길거리 음식 코너 5개소, 할머니 장터 10개소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길거리 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매주 특정 시간에는 싱싱한 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특별 폭탄세일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놀토 수산시장은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LED 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으며, 에어바운스 놀이 시설을 운영

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토요 음악회에는 관광객 노래자랑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읍·면 가요 경연대회를 여는 등 각종 신나는 프로그램들도 펼쳐질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마량놀토 수산시장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마량 미항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해남군은 해남형 ESG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4년부터 3개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지만 2023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해남군은 자체 예산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1년간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 7월 정기 수요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보조금은 신청 농기계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규격 및 마력수에 따라 정상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트랙터는 최대 2,249만원, 콤팩트는 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폐차 절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면세유 공급 보류 및 탈소신청과 농기계 종합보험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대형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농가 부담을 덜고, 환경을 살릴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호응이 크다"며 "올해는 사업이 없는 해이지만 농가의 수요를 감안하여 군비를 편성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소각 산불방지 잔가지 파쇄기 운영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처리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장흥군은 영농 부산물과 잔가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한 파쇄기 운영을 개시했다.

간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 논·밭두렁 및 산 연접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불이 콩대, 고추대를 포함한 영농부산물과 잔가지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장흥군은 이를 대비하여 산불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

연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파쇄기를 운영중에 있다.

영농부산물과 잔가지 파쇄물은 재활용하여 퇴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불법 소각 방지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확산 방지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 및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사업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산림청 또한 파쇄기 무상임대를 비롯한 지원사업의 확대를 계획 중에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 4년만에 만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 미디어아트·공연·글로벌 행사 등 풍성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4년만에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는 ▲기적의 바닷길 미디어아트 ▲뽕할머니 가족대행진 ▲컬러풀 진도 ▲소망의 조약돌 바닷길 체험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총 70여종의 전시·공연·체험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축제는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 주제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도군 고군면 화동리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1975년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다'가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목격하고 프랑스 신문에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소개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가족 만남의 소원을 이룬 뽕할머니의 전설이 깃든 신비의 바닷길에서 가족의 안녕과 소망을 빌기 위해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진도를 방문하고 있다.

개막식은 지난 20일(목) 오후 3시 호랑이 놀이와 진도북춤을 시작으로 미스트롯 진에 선정된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씨와 세계적인 명성으로 최고의 기량을 갖춘 브레이크그룹인 진조크루가 출연해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다양한 행사 중 진도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



아트가 주목된다.

해상선박퍼레이드, 수상오토바이 퍼레이드, 플라잉 보드쇼 등 해상 공연과 200명이 펼치는 북놀이 퍼레이드 퍼포먼스, 강강술래, 농악, 다시래기, 남도들 노래 등 전통 공연도 '호평'을 받았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유럽·미국·일본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국제적 축제만큼 글로벌 음악여행, 글로벌 씨름대회, 응답하라 '모세의 기적', EDM 나이트쇼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4년만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막을 올렸다"며 "보배섬 진도군을 방문하면 볼거리·즐거거리·체험거리가 가득한 다양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살기 좋은 완도로 오세요" 귀농·귀어인의 집 입주자 모집

완도군에서는 고금면 청학동길198, 196 일원에 조성된 '귀농·귀어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완도군 귀농·귀어인의 집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20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됐다.

기존에 있던 한옥형(62㎡) 1개소와 신규로 조성한 이동형 주택(27㎡) 2개소를 완도군에 귀농,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차 주거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귀농·귀어인의 집 거주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입주 신청 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는 완도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khJune80@korea.kr),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되고, 입주자는 완도군과 청학리새마을회(위탁 운영 마을)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